

교회소식

1. 사순절 시작 후 22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이 누가복음을 성경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성경읽기에 동참하시어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 돌아오는 주일(4월6일) Daylight Saving 이
끝납니다. 주무실 때 10시를 9시로 한국과 3시간
차이가 나도록 맞추어 주세요.
3. 청빙 담임목사님 후보 중 이기인목사를 모시고
돌아오는 주일 (4월6일) 본당에서 설교를 할 것
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 보시고 우리 교회에
적임자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4월 13일 재정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현금 계수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재정 요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배시간

- 주일예배 오후 1:00
(본당)
- 청년부 오후 1:00
(코트야드룸)
- 중고등부 오후 1:00
(코트야드룸)
- 유아동부 오후 1:00
(라운지룸)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명춘
새신자안내 : 이기중
주차안내 : 민광호
주방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박혜정

온라인 현금 안내

예금주 : Calvary Church
은행계좌 : ASB BANK
12-3042-0352091-00



2025년 3월 30일 (통권 26권 13호)

교회 설립 1999년 7월 18일

해외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갈보리교회**
Calvary Church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 12:1-2)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021 109 9757 // pbm@calvary.org.nz

www.calvary.org.nz // www.youtube.com/@calvaryorgnz

주일예배 순서

인도 : 박병민 장로

찬양	주일 찬양팀
예배로의 부름	히브리서 4:15-16
찬송*	19장 / 다함께
참회의 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200장/ 다함께
대표기도	고석승 집사
성경봉독	로마서 1:1-7
찬양대 찬양	457장/갯세마네 동산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 한의도 전도사
찬송	411장 /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로마서 1:7 / 다함께
응답송*	감사 위에 감사 / 다함께
축도*	한의도 전도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공동성경읽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대표기도 순서

3월 30일 고석승 집사
4월 6일 장경희 집사
4월 13일 김병진 목사

수요일예배 순서 (4월 2일)

찬양/기도	수요찬양팀
대표기도	김은희 집사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엡 3:14-21) 한의도 전도사
찬양/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4월 9일 기도: 박정은 집사

*4월16일 기도: 김자경 권사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영성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재나 솟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갖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재점검하는 절제의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켜왔던 사순절 풍속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역사적으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행해져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행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지켜왔던 소중한 전통은 구제와 선행 베풀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에 힘써 왔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의 불의한 삶에 대해 회개할 뿐 아니라 주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는 기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금식, 절제, 구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사순절 기간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시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함으로 사순절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창규 목사 — 온누리 신문 발췌]

공동기도제목

1.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이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복음을 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내 생각과 경험이 우선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선되는 삶이 되도록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공동체 모임이 되도록